

2020년 11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차익매물 속 종목 장세로 혼조 마감 미 경제지표, 고용 둔화, 소득 감소, 소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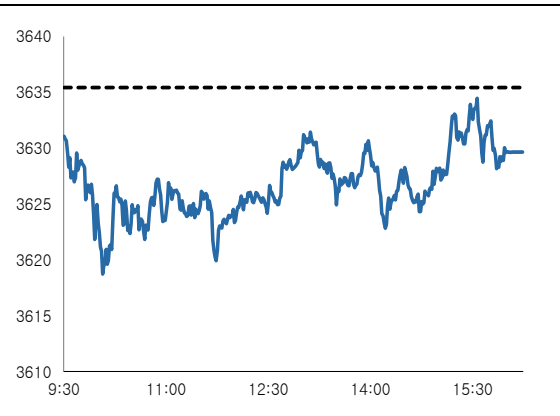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차익 매물 속 종목 장세

미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관망 속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이며 혼조 마감. 한편, 지표 발표 결과 고용은 둔화되고 개인 소득도 감소했으며, 비내구재 소비는 지난 4 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 위축을 시사하자 매물 출회.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 속 온라인 판매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되며 나스닥은 상승(다우 -0.58%, 나스닥 +0.47%, S&P500 -0.16%, 러셀 2000 -0.46%)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 이슈가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줌. 물론 연속 신청자수는 29.9 만건이 감소한 607.1 천건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신규 청구 건수 증가는 향후 고용 둔화 우려를 높임. 이런 가운데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으며, 개인 지출 또한 전월 대비 0.5% 증가로 지난 달 발표(mom +1.2%) 보다 크게 감소. 특히 내구재 소비가 0.6%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 소비가 지난 4 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해 소비 위축도 확산. 이날 발표된 연준의 11 월 FOMC 의사록을 보면 고용시장 개선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

물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 그렇지만 이는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와 식품, 의류, 연료, 제약과 같은 비내구재 중 필수품에 집중. 소비 지출에서 61%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는 전혀 다른 상황. 1 월부터 4 월까지 전체 소비지출 감소에서 서비스 소비가 차지한 비중은 72%. 그 후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손실의 64% 정도만 회복된 상태. 특히 서비스 지출의 20%를 차지하는 식당, 오프라인 쇼핑, 여행, 호텔 숙박 등 대면 활동은 지속적으로 위축.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실물 경제 위축으로 11 월 FOMC 의사록에서 보듯 연준은 자산 매입 가이던스 강화, 장기물로의 전환 등이 논의 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시장은 매물이 출회 되고는 있으나 조정 폭은 제한되는 양상. 이런 가운데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기대로 아마존(+2.15%), 페이팔(+4.11%), 애플(+0.75%) 등 일부 종목군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601.54	-0.62	홍콩항셱	26,669.75	+0.31
KOSDAQ	865.12	-0.80	영국	6,391.09	-0.64
DOW	29,872.47	-0.58	독일	13,289.80	-0.02
NASDAQ	12,094.40	+0.48	프랑스	5,571.29	+0.23
S&P 500	3,629.65	-0.16	스페인	8,164.70	+0.26
상하이종합	3,362.33	-1.19	그리스	705.21	+0.34
일본	26,296.86	+0.50	이탈리아	22,303.58	+0.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레저 업종 하락 Vs. 아마존 상승

니콜라(-12.35%)는 GM과의 협상에 대한 불안 심리와 12월 1일 락업이 끝나는 밀턴 전 CEO의 주식 매도 가능성이 부각되자 급락했다. 중국 전기차 관련주인 리 오토(-7.37%), 엑스펑(-9.00%) 등은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테슬라(+3.35%)는 리콜 소식과 차익 매물 출회로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적극적인 개인 외국인의 매수 속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포드(-3.92%)는 모건 스탠리가 전기차 관련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GM(-2.15%)은 니콜라 우려로 하락했다. 갭(-19.61%)은 동일 매장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락했다. 코로나 사망자가 2천명을 상회하자 TJX(-2.38%), 라스베가스샌즈(-2.65%), 부킹닷컴(-1.88%), 디즈니(-1.58%) 등이 하락했다.

모더나(+10.78%)는 유럽 집행 위원회가 8천만개의 백신 구입 발표로 급등 했다. 연말 쇼핑 시즌 온라인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 속 아마존(+2.15%)과 페이팔(+4.11%), 애플(+0.75%)은 물론 월마트(+0.31%), 타겟(+1.10%), 코스트코(+0.92%) 등은 강세를 보였다. 노드스트롬(+11.65%)은 실적 호전 발표로 급등했고 오토데스크(+4.74%)도 실적 호전 속 강세를 보였다. 세일즈 포스(-5.37%)는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메신저 기업인 슬랙(+37.59%) 인수 소식으로 하락했으나 슬랙은 급등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1%	대형 가치주 ETF(IVE)	-0.61%
에너지섹터 ETF(OIH)	-1.37%	중형 가치주 ETF(IWS)	-0.80%
소매업체 ETF(XRT)	-0.16%	소형 가치주 ETF(IWN)	-0.86%
금융섹터 ETF(XLF)	-0.35%	대형 성장주 ETF(VUG)	+0.57%
기술섹터 ETF(XLK)	+0.21%	중형 성장주 ETF(IWP)	+0.7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7%	소형 성장주 ETF(IWO)	+0.17%
인터넷업체 ETF(FDN)	+1.39%	배당주 ETF(DVY)	-1.02%
리츠업체 ETF(XLRE)	+0.2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3%
주택건설업체 ETF(XHB)	-0.3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0%
바이오섹터 ETF(IBB)	+0.51%	미국 국채 ETF(IEF)	+0.03%
헬스케어 ETF(XLV)	-0.37%	하이일드 ETF(JNK)	-0.01%
곡물 ETF(DBA)	-0.58%	물가연동채 ETF(TIP)	+0.17%
반도체 ETF(SMH)	-0.01%	Long/short ETF(BTAL)	+1.4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3.66	-2.42%	+10.98%	+40.04%
소재	447.76	-1.08%	+2.57%	+15.11%
산업재	750.40	-0.78%	+1.97%	+18.66%
경기소비재	1,277.27	+0.58%	+2.68%	+6.67%
필수소비재	687.22	-0.08%	+0.28%	+7.02%
헬스케어	1,260.66	-0.42%	-0.78%	+5.61%
금융	473.50	-0.41%	+4.42%	+20.68%
IT	2,142.99	+0.22%	+1.35%	+9.32%
커뮤니케이션	215.65	-0.24%	+1.95%	+11.75%
유틸리티	325.60	+0.12%	+0.22%	+2.06%
부동산	228.17	+0.22%	-0.68%	+8.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과정 속 종목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56%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6.6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한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 증시가 1.19% 하락하는 등 차익실현 욕구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 점이 장 후반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대형주 중심으로 순매수 규모를 확대했던 외국인의 힘에 의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한 것인데, 그 힘이 약화되자 지수가 하락 전환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행보가 중요하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 매수세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한국 수출이 미국과 유럽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며 견고함을 보여 수출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 고용은 둔화되고 있고 개인 소득도 큰 폭으로 감소 되었다. 여기에 소비 개선도 여름 휴가 비용과 추가 실업수당 등으로 가격이 비싼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내구재와 의약, 에너지 등 필수품에 집중되었을 뿐이다. 특히 소비지출 61%를 차지하는 서비스 소비는 회복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확산이 미국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한국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가 기대 만큼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기는 회복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관련 인사와 백신 개발 등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안에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물 경제는 위축된 상황에서 KOSPI 12m Fwd PER 이 12.8배를 기록해 10년 평균 9.6배를 크게 상회하는 등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S&P500 12m Fwd PER 21.7 배, 10년 평균 15.6 배).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주요 시장의 특징처럼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속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둔화, 소득 감소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74.8 만건이나 예상(73 만건)을 상회한 77.8 만 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도 지난 주 74 만 3,500 건에서 74 만 8,500 건으로 증가해 코로나 사태가 고용 악화로 이어진 모습을 보였다.

10 월 미국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7% 감소해 지난달 발표(mom +0.7%)나 예상(mom +0.1%)를 크게 하회했다. 개인 지출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지난 달 발표(mom +1.2%) 보다는 크게 감소했으나 예상(mom +0.4%)을 소폭 상회했다. 소비 지출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내구재 소비가 0.6%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 소비는 지난 4 월 이후 처음으로 0.3% 감소했다.

10 월 PCE 디플레이터는 전월과 변화가 없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1.2% 상승해 예상과 부합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디플레이터도 전월과 변화가 없었으며 전년 대비로는 1.4% 상승해 예상과 부합했다.

미국 10 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100.2 만건) 보다 둔화된 99.9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97.5 만건)을 상회해 여전히 주택시장의 활황세를 이어 갔다.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지표인 11 월 스테이츠스트리트 지수는 전월(80.1) 보다 크게 상승한 90.7 로 발표돼 기관들의 포트에서 안전자산이 축소되었음을 보였다. 북미 지역이 10.6p 상승한 80.1 을 기록하며 이를 주도 했으며 아시아도 91.8 에서 95.1 로 상승했다. 다만 유럽은 1.8p 하락한 92.0 으로 발표되었다. 유럽 지역은 코로나 확산으로 북미 지역은 대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10 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3% 증가해 지난 달 발표(mom +2.1%) 보다는 둔화 되었으나 예상(mom +0.9%)을 상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1.3% 증가해 예상(mom +0.3%)을 크게 상회 했다.

3 분기 미국 GDP 수정치는 잠정치와 같은 전분기 대비 33.1% 증가를 기록했다. 소비지출이 40.6%로 0.1p 하향 조정되었으나 기업 설비 투자를 이야기 하는 비거주용 고정 투자는 21.3%에서 21.8%로 상향 조정 되었다.

11 월 소비심리지수는 잠정치(77.0)나 예상(77.2)을 하회한 76.9 로 발표되었다. 지난달 81.8 에서 크게 하향 조정된 수치인데 코로나 확산과 대선 이슈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 재고가 75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하자 상승을 이어갔다. 한편, 공장 가동률이 77.4%에서 78.7%로 상승해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인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더 나아가 OPEC+ 장관급 회담에 대한 기대 또한 긍정적이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재무장관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을 언급 한 이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결국 강세로 전환했다. 한편,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으로 노르웨이 크로네와 브라질 헤알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러시아 루블, 캐나다 달러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달러 약세로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2% 강세를 보였으나, 멕시코 페소 등 일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와 비내구재 소비 둔화 등 경제지표 위축으로 하락 출발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변화가 제한되며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한편, 연준은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국채 매입 속도 늘리거나 장기물로 전환을 논의 했으나 합의는 없었다는 점에서 장기물이 상승했다

금은 달러 약세로 소폭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미국 경제지표 둔화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4%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5.71	+1.78	+8.81	Dollar Index	91.985	-0.26	-0.36
브렌트유	48.61	+1.57	+9.63	EUR/USD	1.1917	+0.21	+0.54
금	1,811.20	+0.02	-3.62	USD/JPY	104.45	+0.01	+0.61
은	23.446	+0.15	-4.53	GBP/USD	1.3384	+0.20	+0.84
알루미늄	1,970.00	-0.83	-1.40	USD/CHF	0.9081	-0.35	-0.37
전기동	7,300.00	+0.10	+2.98	AUD/USD	0.7367	+0.08	+0.85
아연	2,754.50	-0.09	+0.27	USD/CAD	1.3001	+0.02	-0.61
옥수수	427.50	-1.16	-0.70	USD/BRL	5.3169	-1.08	-0.86
밀	596.50	-3.40	-1.65	USD/CNH	6.5631	-0.18	+0.02
대두	1,184.00	-0.61	+0.70	USD/KRW	1108.90	-0.34	+0.46
커피	117.15	+1.08	-4.64	USD/KRW NDF1M	1106.60	-0.38	-0.0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882	+0.17	+1.15	스페인	0.066	-0.60	-1.30
한국	1.635	+4.00	+3.10	포르투갈	0.018	-1.20	-2.80
일본	0.021	-0.40	+0.30	그리스	0.680	+1.50	+2.10
독일	-0.568	-0.50	-1.40	이탈리아	0.613	+0.20	-4.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